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최근 주요국의 실물지표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美 소매판매(전월비, %) : (4월) △14.7 (5월) 18.3 (6월) 8.6 (7월) 1.1 (8월) 0.6 **(9월) 1.9**
유로존 산업생산(전월비, %) : (4월) △18.1 (5월) 12.5 (6월) 9.5 (7월) 5.0 **(8월) 0.7**

이에 따라 IMF도
이러한 주요국의 경제회복 흐름을 감안하여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5.2%→△4.4%)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6월대비 +0.2%p 상향된 △1.9% / OECD국가 중 2위 기록(1위 리투아니아 △1.8%)

다만, 개선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경계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9월 중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고,

* 수출(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 ('20.1/4) △1.8 (2/4) △20.3 (7월) △7.1 (8월) △10.1 **(9월) 7.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적극적 재정정책 등도
내수 경기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수도권은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그러나, 글로벌 경기 회복의 가장 큰 하방 위험요인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손꼽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필요]

코로나19는 팬데믹 이전부터 겪고 있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성장 촉진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K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도상향, 중복수급 허용 등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지원실적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9.23일 이전(일평균 74억원) : [7월말] 5,570억원 → [9.22일] 6,681억원
9.23일 이후(일평균 753억원) : [9월말] 10,196억원 → [10.16일] 17,223억원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간 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이 지원되는 정책상품인 만큼 전체 신용등급, 특히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자금지원-경영 컨설팅”을 결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가 발생한 휴·폐업 상태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돕고 있습니다.

- * ① **(채무조정)** 휴·폐업 자영업자에 일반채무자보다 우대조건으로 신복위 채무
조정 특례지원(초기 2년 상환유예 가능, 분할상환기간 8년 → 10년으로 연장)
- ② **(자금지원)**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 만으로 미소금융 자금 지원
- ③ **(컨설팅)** 대출 전 사전컨설팅 + 대출 후 멘토링으로 사업성 보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을 지원(20만명)중이고,

- * 지원대상 : 폐업이전 3개월 이상 사업 영위 및 매출 발생, 재기교육 1시간 이수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및 재창업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 중소기업 자금수요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기업에게도 규모 등에 따라 비대칭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자본시장 등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금년 4/4분기중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0.13일) : ①'20년 4/4분기 중 대출수요지수 :
(대기업) 6, (중소기업) 24, ②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 (3Q) 12 → (4Q) -3

** 은행 원화대출(기간중 말잔 증감) : (대기업) '20.7월 1.9조원 → 8월 △0.1조원 →
9월 △2.3조원, (중소기업) '20.7월 6.4조원 → 8월 6.1조원 → 9월 7.3조원,

우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개편(9.24일)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과
2.4조원 확대된 신·기보 코로나 특례보증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여력 확충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말씀]

최근(10.10일) **Economist**는 특집 리포트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와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①**글로벌화 축소**(less globalised),
②**디지털 전환 가속화**(more digitised),
③**불평등 심화**(less equal)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fundamental rethink)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과거의 경제를 복구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방지하고,
성장의 혜택을 보다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The peril and the promise (The Economist special report, '20.10.10)**

The pandemic will leave economies less globalised, more digitised and less equal. ... It is against this back-ground that economic policy needs a fundamental rethink. ... Rather than trying to restore yesterday's economy, governments must adapt to change, ensure it does not expose people to outsized losses, and seek to share the fruits more widely.

금융당국도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①**혁신성장 지원**, ②**디지털금융**, ③**포용금융**, ④**금융안정**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금융정책을 통해
현재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